# 빚고을장애인체육 빚낸 별들 "잊지 않겠습니다"

#### 광주시장애인체육회 '2025 광주시 장애인체육상 시상식' 개최

### 전국장애인체전 종목 종합 1위 양궁, 성취 종목·도약 종목 시상 김지향·양지은·장신영'광주시장상', 박정연·이기홍등 공로상

광주시장애인체육회가 2025년 광주를 빛낸 체 육 유공자들을 시상하고, 새로운 광주시장애인 체육 비전을 공유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2일 광주시장애인국 민체육센터 3층 다목적실에서 '2025 광주시 장애 인체육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해단식을 겸해 열린 이날 시상식에서는 전국장애인체전에서 종목 종합 1위를 차지한 양궁, 종합 3위 배구와 보치아를 비롯해 성취 종목 육상, 도약 종목 론 볼·당구·골프종목 시상에 이어 올해 광주시 장 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한 5개 부문(체육진 흥상·자원봉사상·공로상·홍보상·우수모범직 원상) 58명에 대한 표창이 이어졌다.

체육진흥상 유공자는 전문체육 부문 김지향 (광주시장애인수영연맹), 양지은(광주시장애

인역도연맹), 장신영(광주시장애인육상연맹) 이, 생활체육 부문은 강도영(장수당 한약방), 곽 민경(남구장애인체육회), 손대승(남구체육회) 이 각각 광주시장상을 수상했다.

공로상은 광주장애인체육 제1, 2기 발전위원 회 위원으로 참여하며 광주 장애인체육 선수들 을 위해 1천만원을 후원한 박정연 승후테크 대 표이사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한 광주선수단을 위해 600만원을 후원한 고상형 광 주365재활병원장, 광주시장애인배드민턴협회 장으로 활동하며 안정적인 광주시장애인배드민 턴협회 운영과 매년 500만원씩 전국체전 경기력 향상 후원금을 기탁한 이기홍 회장 (목송산업개 발 총괄사장), 전국체전 후원금을 쾌척한 이석 우 한일종합기계㈜ 대표 등이 각각 수상해 의미 를 더했다.



한상득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등 내빈들이 2일 광주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 3층 다목적실에서 열린 '2025 광주시 장애인체육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2026년 광주시장 애인체육회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한상득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올해 꿈을 향한 도전에 함께 해준 많은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 광주시장 애인체육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올해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제45회 전국장 애인체육대회 종합 순위 6위 달성', '광주 2025세 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성공개최', '2025 광주 장애인복지 통합박람회 공동 개최', '광주시 장 애인탁구훈련장 시설 개·보수' 등 전문·생활·시 설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빛나는 한해 를 보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를 다가오는 2026년에도 빛고을 7만 장애인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박희중기자

# 광주FC'구단첫 준프로' 김윤호와 프로 계약

#### 구단 최초…김윤호 "항상 겸손한 자세로 팀에 보탬이 될 것"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가 2일 구단 첫 준 응을 차근차근 이어가고 있다. 프로 선수 김윤호와 프로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7월 구단 U-18팀인 금호고 2학년 김 윤호와 구단 역사상 최초로 준프로 계약을 체 결했던 광주는 김윤호가 보여준 잠재력과 성 장세를 높이 평가해 이번 정식 프로 계약으로 연결했다.

2007년생 김윤호는 2024년 9월22일 제주와의 홈경기에 선발 출장해 17세 4개월 9일의 나이로 구단 최연소 출전 기록을 세웠다. 이는 승강제 가 도입된 이후 K리그1 최연소 출전 기록이기

김윤호는 이후 U-18 대표팀에도 발탁되는 등 촉망받는 유망주로서의 가치를 입증해왔다. 세로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겠다"고 소감 현재까지 K리그 2경기에 출전해 프로 무대 적 을 밝혔다.

김윤호는 장신 공격수다운 포스트 플레이뿐 아니라, 날카로운 키패스와 유연한 공간 침투 능력을 겸비한 전천후 공격수로 평가받고 있

광주는 김윤호의 정식 프로 계약 체결로 공 격진의 옵션을 확장하고, 2선과의 연계 플레 이 강화 등 다양한 전술적 활용을 기대하고

김윤호는 "정식으로 프로선수가 돼 매우 기 쁘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팀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을 위해 매일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겸손한 자 /박희중기자



광주FC 구단 최초 준프로선수에서 프로계약을 체결한 김윤호 〈광주FC 제공〉

### 최형우,조아제약프로야구 대상 '기록상'

#### 오선우는 '에바치온상' 수상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최형우와 오선우 가 '2025 조아제약 프로야구 대상' 시상식에서 '기록상'과 '에바치온상'을 수상했다.

조아제약㈜과 일간스포츠가 공동 제정한 이 번 시상식은 2일 서울 강남구 라움 아트센터에 서 열렸다.

최형우는 올 시즌 4천400루타, 1천700타점, 18 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 18시즌 연속 100경기 출장이라는 '역대 최초' 기록 4개를 새로 작성 하며 다시 한 번 KBO의 이정표를 세웠다. 타율 3할을 넘은 꾸준한 타격까지 더해져 기록상 수 상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오선우는 1군에서 처음으로 풀타임에 가까 운 124경기를 소화하며 타율 0.265, 18홈런, 56타 점, OPS 0.755를 기록했다. 경기 흐름을 바꾸는 타격과 시즌 내내 꾸준한 활약이 인정돼 에바



2일 열린 2025 조아제약 프로야구 대상 시상식에서 기록 상을 수상한 최형우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

치온상을 수상했다.

한편 대상은 한화의 코디 폰세와 kt 안현민 이 공동 수상했다. 최고 투수상은 임찬규([G) 와 원태인(삼성), 최고 야수상은 송성문(키움) 이 차지했다. /주홍철 기자

## 광주FC, 금호고 공배현·김용혁·정규민 전격 콜업

#### '젊은 피'수혈…새로운활력

프로축구 광주FC가 젊은 피 수혈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광주는 2일 "구단 산하 U18금호고 소속인 공 배현(DF·18), 김용혁(DF·18), 정규민(MF·18) 유스 3인방을 프로로 콜업했다"고 밝혔다.

공배현은 187cm-78kg의 우수한 신체 조건을 자랑하는 중앙 수비수로 큰 키를 활용한 공중 볼 경합 능력이 장점이며 빠른 판단력과 인터 셉트 능력이 뛰어나다.

공배현과 함께 뒷문을 지킨 김용혁 역시 188 은 "하루빨리 데뷔해 팬들 cm-76kg의 체격을 갖춘 중앙 수비수로 제공권 뿐만 아니라 큰 키 대비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뒷공간 커버, 양발을 활용한 빌드업 능력 또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중원을 이끌 자원인 정규민은 왼발잡이 중앙 미드필더로, 올해 U18 금호고 상승세의 핵심 에이스로 활약했다.

우수한 킥 능력을 바탕 으로 한 볼 배급과 탈압박 능력이 돋보이며, 경기 흐 름을 조율하는 플레이메 이커 유형의 선수다.

금호고 3인방은 각자의 롤모델을 언급하며 성장 을 다짐했다.

변준수의 수비 능력을 닮고 싶다고 밝힌 공배현 에게 좋은 모습을 선보이 고 싶고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전했다.

안영규의 리더십을 배우고 싶다고 말한 김용 혁은 "팀에 빠르게 녹아 들어 좋은 활약으로 팬 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광주FC가 전격 콜업한 공배현, 김용혁, 정규민

〈광주FC제공〉

신창무를 롤모델로 밝힌 정규민은 "광주에 합류할 수 있게 돼 매우 영광스럽지만 이제 시 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안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 /박희중기자

### "홍명보호, 월드컵 우승확률 0.3%"

#### 옵타슈퍼컴퓨터 예측…스페인 17%

축구 기록 전문 매체 '옵타'가 2026 북중미 월 드컵 조 추첨을 앞두고 전망한 한국 축구대표 팀의 우승 확률은 0.3%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우승확률은스페인의 17%였다.

옵타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6 북중미 월 드컵 조 추첨을 앞두고 옵타 슈퍼컴퓨터를 통

해 내년 대회 결과의 초기 예측을 했다"고 밝혔

옵타는 "아르헨티나가 2개 대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가운데 2022 월드컵 준우승팀인 프랑 스와 유로 2024챔피언인 스페인이 강력한 경쟁 자가 될 것"이라며 "잉글랜드와 브라질, 포르 투갈도배제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옵타 슈퍼컴퓨터가 본선 진출을 확정한 42개

국에서 가장 높은 우승 확률로 손꼽은 국가는 1 7%의 스페인이다.

스페인에 이어 프랑스(14.1%), 잉글랜드(11.8 %), 아르헨티나(8.7%), 독일(7.1%), 포르투갈 (6.6%), 브라질(5.6%), 네덜란드(5.2%), 노르웨 이 (2.3%), 콜롬비아 (2.0%)가 우승 확률 톱10을 구성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17위(0.9%)를 차지했고,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무대에 진출 한 한국은 0.3%의 우승 확률로 이집트, 알제리 와 함께 공동 26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



최근 열린 대한 검도회 표창식에서 우수단체 및 우수지도자, 우수선수 전 부문을 석권한 서석중 검도부. 왼쪽부터 정 동진 서석중 교장, 조태원 대한 검도회장, 옥하준,임동력 코치 〈서석중 제공〉

### '검도 명문' 서석중, 올해 '최고의 팀'

### 대한검도회 표창. 우수 단체·우수 선수·우수 지도자상 휩쓸어

서석중이 2025 검도인의 밤 및 대한검도회 표 았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교육청이 선정한 학 창식에서 중학부 전 부문을 휩쓸며 올해 최고 의 중학교 검도팀으로 자리매김했다.

창식에서 중학부 우수단체・우수지도자・우수 선수전 부문 모두 수상했다.

서석중은 우수단체, 임동력 코치는 우수지도 자, 옥하준(3년)은 우수선수로 각각 이름을 올

옥하준은 올 한 해 전국대회에서 안정적인 경기력과 강한 집중력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왔고 임동력 코치는 기술·전술은 물론 선 수들의 인성과 태도를 균형 있게 지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석중은 지난해부터 올시즌까지 체계적 훈 련 과정 아래 전국대회 단체전 3관왕 등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전국 최상위권 팀으로 자리 잡

교운동부 청렴 문화 선도 베스트팀 중학부 최 우수팀에도 오르며 경기력과 운영 투명성 모 서석중은 최근 대전 호텔선사인에서 열린 표 두에서 모범적인 학교운동부로 인정받았다.

> 이같은 성과는 정직하고 투명한 운영 속에서 올바른 청소년 스포츠 문화를 실현해야 한다 는 철학을 토대로 지도자와 학생들이 부담을 덜고 기량에 집중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 해온 데서 비롯됐다. 지속적 투자와 지원이 서 석중 검도부의 성장 기반이 됐다는 평가다.

> 상급학교인 서석고 검도부와의 유기적 협력 도팀성장의 핵심요소로꼽힌다.

두 학교는 정기 합동훈련, 기술 교류, 선·후 배 멘토링 등을 통해 훈련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어왔고 선수들이 더 넓은 시야와 높은 경기 력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박희중기자